

# 파업 해결됐지만...준공영제 개선 요구 봇물

### 광주시 중재안보다 0.03% 올려 시내버스 협상 타결 결국 파업 최대 피해자인 시민의 세금 더 투입 서비스 만족도·안전의식 향상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광주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파업 8일만인 지난 30일 새벽 타결돼 그동안 멈춰섰던 '시민의 발' 버스의 운행이 재개됐다. 하지만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비롯, 서비스 만족도·안전 의식 등을 개선·강화하는 방안보다 운행 적자를 메우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은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 3.65% 인상안 합의 =광주시내버스노조는 지난 30일 열린 운

송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임금 3.65%(11만 6000원) 인상이라는 소득을 얻어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은 파업 돌입 전 광주시가 노사 양측에 제시했던 중재안(3.62%)보다 0.03%(1000원)높은 수준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1000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8일간 시민 불편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5.29% 임금 인상안 대신, 3%대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크게 양보한 결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광주시도 노사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냈

을 뿐 아니라 전세버스 100대를 조기에 투입하고 시의노선 운전기사를 시내노선을 대체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장,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또 다시 1인당 3.65% 임금 인상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매년 26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책임져야 할 처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회사 인건비(운전원 인건비 총액기준)는 ▲2008년 728억(3.59%) ▲2009년 738억(1.45%) ▲2010년 779억(5.60%) ▲2011년 813억(4.25%) ▲2012년 867억(6.75%) ▲2013년 903억(4.16%) 등 매년 1%~6% 가량 인상됐다. ○"준공영제 개선할 시기"=광주시내버스 노조는 매년 파업을 예고해왔고 올해는 12년만에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도입 뒤에도 제도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 불편을 도외시한 채 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시선은 꺾이지 않는다.

시내버스 파업의 최대 피해자가 시민들임에도, 명확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노사 양측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준공영제 투입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시내버스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및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문 열고 에어컨 “앙~돼요”

지난 30일 북구청 에너지 관리담당 직원들이 전년대 후문 앞 상가를 돌며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여름철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고 문 열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최해빈기자 choi@kwangju.co.kr

## 경찰 금주령에 주변 식당가 울상

### 광주, 세월호 애도 분위기 해제 이후에도 회식 자제

광주지역 각 경찰서 주변 식당가가 때마침 울상을 짓고 있다. 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애도 분위기 등을 감안, 모든 경찰관에게 '금주령'을 내려 인근 식당을 찾는 직원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광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공직자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기부금 및 근무·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지시했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5월 23일까지 금주령을 내린데 이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장기화하고 6·4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금주령이 지난 8월까지 연장됐다. 현재 금주령이 풀렸지만

경찰관들 사이에선 회식금지 및 구내 식당 이용이 공공연하게 공식화된 상태다.

또한 아직까지 세월호 실종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경찰서 주변 식당이 아닌 집 주변 등 식당을 이용하면서 인근 식당 주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P식당 주인 김모(56)씨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매출이 적달 전에 비해 30~40%가량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금주령 이후 직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음주문화(?)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후 편의점 등에서 술을 구입한 뒤 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몇몇이 야에 경찰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녁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 광주지법, 선체 구조 파악

법원이 세월호 ‘쌍둥이 배’로 불리는 정해진해운 소유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에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지난 30일 오후 1시부터 인천항에서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검증은 현재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가라앉아 구조 파악이 힘든 세월호 대신 비슷한 형태의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의 선체 내부를 살펴봄으로써 배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배가 급하게 기울어 승객 구조가 어려웠다는 일부 승무원 주장의 신빙성,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에는 재판부 외에 검사,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5명, 변호인 8명, 피해자 측 가족 4명과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 객실, 대피장소 등 선박 내부와 구명 시설, 화물 고박 시설 등을 2시간가량 둘러보며 배의 구조와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위치 등 조타실과 기관실의 침몰 당시 상황,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이동 경로, 객실 구조, 객실과 대피장소 사이의 이동 경로, 구조장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김지웅기자 dok2000@

남자 청소년은 인터넷,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의 수는 졸업이후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와 함께 지난 4~5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11.9%인 약 18만7000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1만3183명(2.9%), 중1은 7만605명(13.5%), 고1은

## 초중고생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이용 습관 조사해 보니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18만7000명

10만2811명(17.4%)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학생수는 전년도 조사(24만여명)보다 약 20% 감소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년(1만372명)에 비해 20% 이상 증가해 중독이 저연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 인터넷 중독 위험군 10만5000명

10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6.7%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이 1만947명(4.4%), 중1이 4만3187명(8.3%), 고1이 4만2393명(7.2%)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녀 학생이 거의 절반씩을 이룬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군이, 남자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여자 청소년은 11만4442명으로 남자 청소년 수인 7만2157명의 약 1.6배에 달했다. 반대로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 수(6만6446명)가 여자 청소년 수(3만8611명)의 약 1.7배였다. 여기부는 중독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79개 치료협력병원과 연계한 상담 및 각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치유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엠펙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 신축원룸매매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12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500만**  
(1년6000만 수익발생)  
**매가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 상가매매·오피스텔매매(수익성)

-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공도) 매가 2억5천(보2천 월12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삼연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역 1번 출구 2분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올수리 전제제품 신규교체 임대완료,주인거주가능)
-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세비없음)

##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품목서 무료**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불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사은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 상가임대(수원지구, 북구)

- ▶수원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0만(세비없음)
- ▶수원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허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 ▶수원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세비없음)
-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장례식장) 보3천 월150만(시당, 카페, 당구장, 호프적합)
- ▶나주 삼연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산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번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각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정로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가11억, 최저4억9천7, 충정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802㎡) 감정가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태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신희동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연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증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정로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정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승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증금 1천, 월90만) 매매가능
-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할 분**  
상가,대지,근린시설 주택,APT,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